

고대 일본 약사여래상의 도상

임 남 수 *

- I. 머리말
- II. 飛鳥시대와 白鳳시대의 약사여래상
- III. 奈良시대의 약사여래상
- IV. 平安시대 이후의 약사여래상
- V. 일본 약사여래상의 도상의 특징
- VI. 藥師寺의 창건과 약사여래상의 도상
- VII. 맺음말

I. 머리말

약사여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에서 중생을 치유할 수 있는 현세이익적인 성격이 강한 부처로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널리 신앙되어 왔다. 질병의 치유라는 현세이익적인 성격은 일반 민중들에게 쉽게 수용되기 쉬운 만큼, 약사여래의 도상도 각국의 사정이 반영되었고, 그 결과 한국과 중국, 일본의 약사여래는 다른 존격에 비하여 그 모습이 확연히 구별되기도 한다.

필자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한국 약사여래상의 도상을 검토하고, 중요한 도상의 특징으로써 곡물이 담긴 藥器를 지적한 바 있다.¹ 본 논문은 한국의 약사여래상에 이어서 고대 일본의 약사여래상에 대한 고찰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고대 일본의 약사여래상은 지물뿐 아니라 착의법과 坐法에 있어서도 한국과는 다른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서 도상의 성립과 그 전개에 일본

* 영남대학교,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G00023)

¹ 林南壽, 「古代 韓國 藥師信仰의 展開樣相과 造像」, 『史林』24(2005, 12), pp. 73-100,

나름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된 바 없다.²

본논문에서는 7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고대 일본의 약사여래좌상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개관하며,³ 각각의 도상적 특징과 조성 배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본 약사여래상의 도상의 성립과 전개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일본 약사여래상의 도상이 지니는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飛鳥시대와 白鳳시대의 약사여래상

불교 도입기의 일본의 약사신앙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수용과정과 도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는 약사여래상은

法隆寺 金堂 須彌壇 동편에 안치된 金銅藥師如來坐像이다(도1).



도1 〈金銅藥師如來坐像〉, 7세기, 法隆寺 金堂(奈良文化財研究所, 『飛鳥·白鳳の在銘金銅佛』, 1979, p. 154)

이 불상은 오른손을 들어 施無畏印을 결하고, 왼손은 약지와 소지를 구부려서 與願印을 결하며 결가부좌하고 있다. 지물은 따로 지니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모습은 금당 수미단 중앙에 안치된 석가삼존상의 본존과 똑같기 때문에 도상적으로는 석가상과 구별되는 약사상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 약사상의 광배 명문에 의하면, 586년 병에 걸린 用明天皇이 여동생인 推古天皇과 아들인 聖德太子를 불러 약사여래상의 조성 및 사찰의 건립을 발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였기에, 推古天皇과 聖德太子는 그 유지를 받들어 608년에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 명문이 사실이라면, 일본 불교의 도입기인 飛鳥시대에 이미 약사신앙이 존재하였으며, 이 불상은 일본

2 일본의 약사여래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伊東史郎, 『日本の美術242, 藥師如來像』(至文堂, 1985)

内藤藤一郎, 『日本佛教圖像史』(東方書院, 1932), pp. 1-111.

3 일본의 시대구분에서 고대는 飛鳥시대에서 平安시대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7세기에서 10세기로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약사여래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불상의 양식도 금당 수미단 중앙에 안치된 석가삼존상의 본존과 거의 유사하여 20세기 전반까지는 飛鳥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으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福山敏男씨는 약사상의 명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⁵ 福山씨의 논점은 多岐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정리하면 첫째, 명문에 보이는 天皇이라는 용어가 飛鳥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둘째, 일본에서 약사신앙이 등장하는 것은 白鳳시대의 藥師寺 건립 이후이고, 셋째, 천황 발원의 사찰, 즉, 官寺는 舒明 11년(639)에 발원된 百濟大寺가 효시이며, 넷째, 약사상의 양식적 특징은 금당의 석가삼존상보다 후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福山씨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法隆寺 약사상의 명문은 白鳳시대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의 논점 중에서 천황 용어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 외의 점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현재 이 명문의 신빙성은 부정되고 있다.

大西修也씨는 福山씨의 연구를 한층 더 발전시킨 견해를 발표하였다.⁶ 大西씨는 法隆寺가 670년의 화재로 가람이 전부 소실되어 재건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찰의 檀越인 聖德太子 일가는 이미 폐멸하여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 최초의 사찰인 飛鳥寺가 발원자인 蘇我氏를 잃었지만 사찰과 불상의 발원이 推古天皇과 聖德太子에 의한 것으로 광배 명문을 조작하여 조정으로부터 官寺의 대우를 받고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재건이 급박했던 法隆寺에서도 飛鳥寺처럼 관사로써 조정의 지원을 받고자 명문을 조작하였다고 추정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福山씨와 大西씨의 견해를 종합하면, 이 불상은 조성 당시의 명칭과 발원 목적은 알 수 없으며, 白鳳시대에 들어서 약사상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을 飛鳥시대의 약사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白鳳시대의 약사여래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法隆寺 금당 10호벽의 벽화이다. 法隆寺 금당벽화는 외진의 동/서/북벽의 4면의 벽화와 그 사이사이의 소벽 8면을 합한 12면의 그림을 말한다. 이 벽화들은 1949년에 소실되었지만 다행히 사진과 모사도를 통하여 원형을 추정할 수 있다.

4대 벽화의 주제는 고대부터 이미 관심이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平安시대후반의 문헌인 『七大寺日記』는 서벽을 아미타여래, 동벽을 약사여래로 기록하고 있으며, 鎌倉시대의 法隆寺 승려 顯眞이 편찬한 『聖德太子傳私記』는 동벽 寶生(1호벽), 서벽 아미타(6호벽), 동북벽 약사(9

4 内藤藤一郎, 『飛鳥時代の美術』(政經書院, 1934), pp. 22-25.

5 福山敏男, 『法隆寺の金石文に關する二三の問題』, 『夢殿』13(1935, 6), pp. 47-64.

6 大西修也, 『再建法隆寺と藥師銘成立の過程』, 『佛教藝術』133(1980, 11), pp. 34-51.

호벽), 서북벽 미륵(10호벽)으로 전하고 있다.

4대 벽화 중에서 서벽의 주제가 아미타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다. 그런데, 동벽에 대해서는 이미 고대부터 약사와 보생 등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것을 알 수 있다. 보생여래는 밀교에 등장하는 존격이므로 7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여래 주위에 10명의 비구가 확인되므로 석가모니와 10대제자를 다룬 석가여래정토로 추정되기 때문에 동벽의 주제가 약사여래일 가능성은 없다.

이 때문에 9호벽을 미륵여래, 10호벽을 약사여래로 비정하여 6호벽의 아미타여래와 아울러 금당벽화의 주제를 四方淨土로 해석하려는 견해도 있다.⁷ 10호벽은 여래의좌상을 중심으로 권속을 좌우에 배치하고 있다(도 2). 특히 의좌상의 왼손에는 청색의 보주가 그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龜田孜씨는 이를 약사상의 근거로 주장하기도 하였다.⁸ 그러나 松原智美씨에 의하면, 白鳳시대의 일본 불교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 初唐시대의 의좌상은 모두 미륵인 반면, 약사상은 입상이나 결가부좌상으로 조성되며 의좌상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10호벽의 여래의좌상이 약사여래상일 가능성을 부정하였다.⁹

일찍이 水野清一씨는 9호벽의 주제를 약사여래의 정토로 추정하기도 하였지만, 松原智美

는 여래상 주변의 권속은 八部衆像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9호벽의 본존을 약사여래로 비정하기도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¹⁰ 따라서 현재로서는 法隆寺 금당벽화에서 약사여래상의 존재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白鳳시대의 약사여래상 연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藥師寺의 본존 약사여래상이다. 藥師寺는 680년에 天武天皇이 병에 걸린 鸕野讚良皇后的 쾌유를 빌며 발원한 사찰이었다. 天武는 藥師寺의 공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죽었고, 황후가 그 뒤를 이어 持統天皇으로 즉위하여 天武의 사업을 계승하여 藥師寺 조성을 추진하였다.¹¹ 이 사찰은 藥師寺라는 이



도 2 〈如來倚坐像〉, 7세기, 法隆寺 金堂10호벽(伊東史朗, 『日本の美術242, 藥師如來像』, 1986, 표지뒷면)

7 源豊宗, 『法隆寺の壁畫』, 『美』17-11(1926. 6), pp. 225-246.

8 龜田孜, 『法隆寺金堂の壁畫に就て』, 『星岡』70(1936. 9), pp. 5-6.

9 松原智美, 『法隆寺金堂壁畫の主題』, 『論争奈良美術』(平凡社, 1994), pp. 125-153.

10 松原智美, 앞의 책, pp. 125-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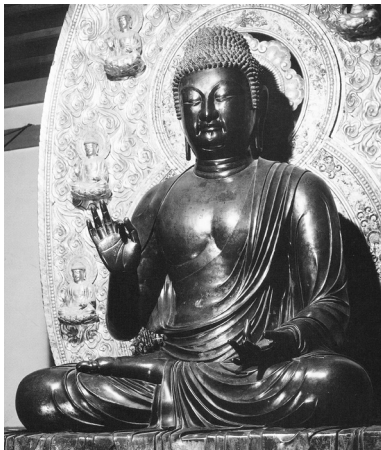
11 會津八一, 『藥師寺東塔の銘文を讀む』, 『天平』3(1948, 12), pp. 4-21.

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약사신앙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더욱이 天武와 持統 등 천황이 발원하고 조성한 사찰인만큼 일본의 약사신앙의 성립과 전개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福山씨가 일본의 약사신앙의 본격적인 출발점을 藥師寺에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藥師寺는 飛鳥의 藤原京에 건립되었으며, 그 터와 초석들이 남아있어 本藥師寺跡으로 불리고 있다. 이 藥師寺는 창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平城京 遷都(710년)에 따라 藤原京에서 奈良市の 西ノ京로 이전하였다. 현재 西ノ京 藥師寺 금당에는 丈六의 藥師如來三尊像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藤原京 당시, 즉 白鳳시대의 불상인지? 또는 奈良시대에 현재 위치에 이전한 후 새로 조성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100여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필자는 후자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¹²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飛鳥시대에서 白鳳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약사여래상의 명확한 사례는 남아있지 않으며, 따라서 당시의 약사여래상의 도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Ⅲ. 奈良시대의 약사여래상



도3 <金銅藥師如來坐像>, 8세기, 藥師寺 金堂(伊東史朗, 『日本の美術242, 藥師如來像』, 1986, no.5)

奈良시대를 대표하는 약사여래상은 단연 西ノ京 藥師寺 金堂의 金銅藥師如來坐像(도 3)이다. 『藥師寺緣起』(1015년)에 의하면 藥師寺는 718년에 飛鳥의 藤原京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고, 『扶桑略記』(平安時代後期)는 藥師寺의 동탑이 730년 3월에 건립되었다고 전하며, 또한 藥師寺 경내에서 716년의 목서명을 지닌 목간이 출토된 점 등을 고려하면, 藥師寺의 약사상은 720년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약사상은 우견편단의 착의법이며, 오른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엄지와 검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왼쪽 다리에 가볍게 올려

¹² 林南壽, 『金堂藥師三尊像』, 『藥師寺一千三百年の精華』(里文出版, 2000) pp. 89-100.



도4 〈塑造彌勒佛坐像〉, 7세기, 當麻寺 金堂(奈良国立博物館, 『特別展 當麻寺』, 2013, p. 17)



도5 〈木造藥師如來坐像〉, 8세기, 新藥師寺 本堂(伊東史朗, 『日本の美術242, 藥師如來像』, 1986, no.7)

놓았으며, 須彌座에 半跏趺坐하고 있다.¹³ 약사상의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當麻寺 金堂의 塑造彌勒佛坐像(도4), 唐招提寺 金堂의 乾漆盧舍那佛坐像 등奈良시대에 조성된 다양한 존격의 여래상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약사상만의 도상적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藥師寺 약사상의 지물은 없는데, 약사여래의 지물에 관한 경전은 不空(705-774)譯의 『藥師如來念誦儀軌』이 유일하기 때문에, 경전에 의거한 약호의 등장은 8세기 후반이 지나서야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藥師寺 약사상에 지물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상의 좌법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이 상은 오른발 위에 왼발을 올려서 반가부좌하고 있다. 대다수의 불상은 왼발 위에 오른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왼발을 위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처럼 왼발을 위로 올린 가부좌를 降魔坐라고 부르며, 오른발을 위로 올린 경우는 吉祥坐라고 부르고 있다.¹⁴

항마는 문자 그대로 魔를 눌러 이긴다는 의미이며, 항마좌는 釋迦降魔成道像을 연상시키는 좌법이지만, 이 상이 약사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의 魔는 병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필자는 藥師寺가 天武天皇이 병에 걸린 鸕野讚良皇后의 쾌유를 빌며 발원한 사찰인 만큼, 병마를 물리치기 위한 상징으로써 특별히 항마좌를 채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어서 奈良시대를 대표하는 약사여래상으로 新藥師寺 本堂의 木造藥師如來坐像(도5)을 들 수 있다. 新

13 좌법은 結跏趺坐와 半跏趺坐로 나눌 수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望月信亨『佛敎大辭典』(世界聖典刊行協會1974), pp. 898-890, 4247-4248, 을 참조.

14 『一切經音義』卷8, 大正新脩大藏經 第五十四冊, p. 353, 「結跏趺坐略有二種 一曰吉祥二曰降魔 凡坐皆先以右趾押左股後以左趾押右股此即右押右手亦左居上名曰降魔坐」

藥師寺는 光明皇后가 聖武天皇의 질병 쾌유를 빌기 위하여 天平 19년(747)에 발원한 사찰로써, 최근의 발굴 결과 동서 59미터, 정면 13칸에 달하는 대규모의 금당터가 발견되었다.¹⁵ 新藥師寺에는 天平寶字 6년(762) 무렵에 금당에 七佛藥師像과 협시보살상 등이 조성되었으나 현존하지 않으며, 현재는 本堂의 목조약사여래좌상이 남아있는데, 그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필자는 奈良시대로 생각하고 있다.¹⁶

新藥師寺 약사상은 오른손을 들어올려서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고, 왼손은 왼발 위에 내려 놓았으며, 왼손에 들고 있는 약호는 후대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다리는 왼발을 오른발 위로 올려 항마좌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의는 우견편단으로 입어서 오른쪽 가슴이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新藥師寺 약사상의 특징은 앞에서 소개한 藥師寺 약사상과 동일하며, 차이점은 오른손의 손가락을 모두 펴서 시무외인을 결하고 있는 점인데, 당시의 불교가 순수밀교의 유입이 전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 상은 藥師寺 약사상과 도상의 계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더욱이 新藥師寺 약사상의 대좌가 須彌座인 점도 藥師寺와의 관련성을 고찰함에 있어 주의할 만한 특징이다. 이처럼 두 불상의 도상적 특징이 공통되는 것은 두 사찰이 모두 여성에 의하여 건립된 황실사찰이라는 창건, 조성의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6 〈乾漆藥師如來坐像〉, 8세기, 法隆寺 西圓堂(朝日新聞社, 『日本の國寶 奈良/法隆寺』, 1997, p. 4-82)

다음으로 法隆寺 西圓堂의 乾漆藥師如來坐像(도 6)을 살펴보면, 이 상의 조성시기와 조성배경 등에 대해서는 문헌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양식으로 보아 奈良시대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西圓堂 약사상의 도상적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우견편단의 착의법을 취하고, 오른손은 들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서 시무외인을 결하며, 왼손은 손바닥에 약

15 NHK「復元幻の大寺院」プロジェクト編, 『復元幻の大寺院: 新藥師寺の謎に挑む』(NHK出版, 2011), pp. 13-42.

16 新藥師寺 藥師像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稲木吉一, 『新藥師寺と白毫寺・圓成寺』(保育社, 1990), pp. 64-69.

호(後補)를 놓고 왼쪽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리는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놓은 항마좌의 자세이다. 팔각대좌는 불상과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으나, 광배는 1283년에 보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西圓堂 약사상은奈良시대 후반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상호와 불신의 표현 등이 경직되고 다소 형식화의 경향도 보이지만, 정강이의 옷주름을 굽은 용기선처럼 표현하거나 대좌에 花趺이 나타나는 등 새로운 요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西圓堂像은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는 반면, 착의법과 수인, 항마좌 등 藥師寺 약사상의 도상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상의 계승과 양식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 7 〈乾漆藥師如來坐像〉, 8세기, 京都 高山寺(伊東史朗, 『日本の美術242, 藥師如來像』, 1986, no.6)

이외에도奈良시대의 약사여래상으로는 京都 高山寺 藥師如來坐像(도 7), 京都 神護寺 藥師如來坐像, 藥師寺 講堂 如來三尊像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상들도 모두 우견편단의 착의법과 더불어 수인과 항마좌 등이 藥師寺 약사상과 공통되고 있기 때문에 藥師寺 약사상의 도상이奈良시대 약사여래상의 전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V. 平安시대 이후의 약사여래상

奈良시대의 후반에는 唐招提寺 金堂 乾漆藥師如來立像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형의 약사여래입상이 출현하며, 平安시대에 들어서면 神護寺 木造藥師如來立像이나 室生寺 木造藥師如來立像 등과 같이 立像의 약사여래상들이 크게 유행한다. 이와 같은 약사여래입상의 등장과 발전의 배경에는 鑿眞和尚의 일본 입국과 最澄를 開山으로 하는 일본 天台宗의 성립이 있었다. 그러나 平安시대에 들어서도奈良시대와 마찬가지로 약사여래좌상이 다수 조성되었는데 이 상들은 당시의 수도 京都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東北地方에도 남아있어서 약사신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먼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福島県 勝常寺의 木造藥師如來三尊像(도 8)을 들 수 있



도8 〈木造藥師如來坐像〉, 9세기, 勝常寺(久野健, 『東北古代彫刻史の研究』, 1971, no.1)

다. 勝常寺는 9세기초에 法相宗 승려 得一에 의해 세워졌다고 전해지며, 이 상은 창건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⁷ 勝常寺 약사상은 안면과 체구 등에 양감이 강조되어 있으며, 대의의 표면에는 이른바 翻波式 옷주름이 새겨져 있어서 平安시대 전기 불상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勝常寺 약사상의 도상적 특징을 살펴보면, 통견으로 대의를 입고, 왼손에는 약호(후보)를 들고 왼쪽 무릎 위에 내렸으며, 오른손은 들어올려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서 시무외인을 결하고, 다리는 항마좌의 좌법을 취하고 있다.

勝常寺 약사상의 착의법은 奈良시대의 약사여래 좌상이 우견편단이었던 것과는 달리 통견이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지만, 대의가 어깨에서부터 복부까지 U자형으로 넓게 열려 있어서 가슴의 절반 이상이 노출되어 마치 우견편단의 착의법과 같은 인상을 자아내고 있다. 그 외의 수인과 좌법은 奈良시대의 약사여래좌상과 동일하다. 그리고 왼발바닥은 대의자락에 덮여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唐招提寺 金堂 본존 盧舍那佛坐像에 보이므로 奈良시대에 기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9 〈木造藥師如來坐像〉, 9세기, 黒石寺(久野健, 『東北古代彫刻史の研究』, 1971, no.21)

岩手県 黒石寺 木造藥師如來坐像(도 9)은 불상 내부의 목서에 의하여 862년에 조성된 것임이 밝혀졌는데,¹⁸ 벌어진 어깨와 짧은 목, 볼륨감 있는 복부, 오른쪽 어깨에 걸린 대의에 보이는 소용돌이 문양 등은 이 불상이 平安시대의 작품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黒石寺 약사상은 오른손을 가볍게 들어올려 중지를 굽히면서 시무외인을 결하고, 왼손은 왼쪽다리 위에 올려놓고 약호(후보)를 들었으며, 다리는 항마좌의 자세를 취하고 착의법은 우견편

¹⁷ 久野健, 『東北古代彫刻史の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1971), pp. 9-11.

¹⁸ 倉田文作, 『佛像のみかた』(第一法規出版株式会社, 1971), pp. 164-167.

久野健, 위의 책, pp. 12-18.



도 10 〈木造藥師如來坐像〉, 10세기, 醍醐寺藥師堂(岩佐光晴, 『日本の美術』457, 平安時代前期の彫刻』, 2004, no.27)



도 11 〈木造藥師如來坐像〉, 9세기, 勝尾寺(東京國立博物館, 『特別展 平安時代の彫刻』, 1971, no.20)

단이다. 흑석사상은 상호와 착의의 세부표현 등에 거친 처리가 보이는 등 일본 동북지역의 지방양식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도상은奈良시대의 약사여래상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당시의 수도 京都의 약사여래상으로 醍醐寺上醍醐의藥師堂 木造藥師如來三尊像(도 10)을 들 수 있다. 醍醐寺 약사상은 醍醐寺의 開山 聖寶와 그의 제자 觀賢이 907년에 발원하여 913년경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가슴에서 등에 이르는 측면의 길이, 즉 가슴의 두께가 매우 두터우며, 탄력있고 당당한 체구를 지닌 平安시대 전반의 대표적인 목조불좌상이다. 醍醐寺 약사상은 대의를 우견편단으로 입고, 오른손은 들어올려서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왼손바닥에는 약호를 올려놓았다. 좌법은 왼발을 오른발 위로 올린 항마좌이다.

醍醐寺 약사상의 왼쪽 정강이에 보이는 역삼각형의 옷주름은 新藥師寺 약사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平安시대의 室生寺 彌勒堂의 木造釋迦如來坐像과 佐渡 国分寺의 木造藥師如來坐像에도 나타나고, 앞서 언급한 勝常寺 약사상과 마찬가지로 대의자락에 감싸인 왼발의 표현이 醍醐寺 약사상에서도 확인되므로, 醍醐寺 약사상의 도상은 奈良시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醍醐寺 약사상의 약호는 조성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¹⁹⁾ 만약 그렇다면 藥師寺 약사상에는 없었던 지물이 平安시대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醍醐寺 약사상은 약사여래상의 지물을 규정한 『藥師如來念誦儀軌』 번역 이후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상적 요소가 도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¹⁹⁾ 水野敬三郎, 『醍醐寺大觀』, 第1卷(岩波書店, 2001) p. 82



도 12 〈木造藥師如來坐像〉, 9세기, 獅子窟寺
(伊東史朗, 『日本の美術242, 藥師如來
像』, 1986, no.84)



도 13 〈木造藥師如來坐像〉, 13세기, 雪蹊寺
(伊東史朗, 『日本の美術242, 藥師如來
像』, 1986, no.20)

大阪 勝尾寺의 木造藥師如來坐像(도 11)은 높이 50cm의 작은 상이지만 착의법과 수인, 항마좌의 자세 등이奈良시대 약사상의 도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역시 大阪 지역의 獅子窟寺의 木造藥師如來坐像(도 12)은 좌우의 손이 보수되기는 했지만 착의법이나 항마좌 등은奈良시대 약사상의 특징을 보이며, 勝常寺 약사상과 마찬가지로 대의자락에 감싸인 왼발의 표현도 확인되기 때문에 수인 또한奈良시대의 특징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平安시대 후기에 들어서도 三重県 光善寺의 木造藥師如來三尊像, 京都 西林寺와 高田寺, 稱名寺 등의 木造藥師如來坐像, 鎌倉시대에 조성된 高知県 雪蹊寺 木造藥師如來坐像(도 13)에서도 藥師寺 약사상의 도상이 후대까지 끊이지 않고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平安시대 이후의 약사상의 예를 하나하나 들 수 없기 때문에 일본 文化廳 監修 『重要文化財I 彫刻I』(1975)에 수록된 약사여래상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 책에 수록된 단독의 약사여래상 138구 중에서 藥師寺 약사상과 같은 도상을 지닌 사례가 63구에 달하여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실물이 아닌 도판의 검토이기 때문에 항마좌의 판단이 어려운 예도 있으므로, 실물 조사를 한다면 비율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 참고로 눈에 잘 띄는 우견편단 착의법이 확실한 예를 확인한 결과 125구에 달하여 90%의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약사삼존상의 경우는 전체 26건 중에서 藥師寺 약사상과 같은 도상의 예가 10건으로 36%이어서 단독상의 경우보다 비율이 낮았지만, 이 또한 실물이 아닌 도판의 검토이기 때문에 실물을 조사한다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우견편단 착의법의 예는 23건으로 88%에 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또한 중앙과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우견편단의 착의법과 시무외인의 수인, 그리고 항마좌의 도상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니는 약사여래상이 다수 조성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상의 기원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藥師寺 약사상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일본 약사상의 도상은 藥師寺 약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V. 일본 약사여래상의 도상의 특징

平安시대 후반에 편찬된 『圖像抄』卷第二 佛頂尊 藥師如來條에는 약사여래의 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²⁰

世流布像有二樣

一者揚右手垂左手 是東寺金堂并南京藥師寺像也 但以左足押右膝坐像也

二者左手持藥壺 以右手作施無畏 或右手曲水指 或火空相捻



도 14 〈藥師如來像〉, 『圖像抄』(大正新脩大藏經, 圖像部三, p. 6)

이 기사에 의하면, 당시 유행하던 약사상은 2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내린 것으로 東寺의 금당과 奈良의 藥師寺의 약사상이 그 예이며, 왼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의 허벅지를 누르는 좌법 즉, 항마좌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東寺의 약사상은 현존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도상적 특징은 앞에서 奈良시대와 平安시대의 주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왼손에는 약호를 지니고 있으며, 오른손은 시무외인을 결하는데, 혹은 오른손의 약지를 굽히거나 또는 장지와 엄지를 맞대고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약호의 등장은 『藥師如來念誦儀軌』 번역 이후에 나타날 것이며, 오른손의 엄지와 장지를 맞대는 수인은

²⁰ 『圖像抄』, 大正新脩大藏經 圖像部三, p. 9.

醍醐寺 약사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둘째 도상은 平安시대 이후에 유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좌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圖像抄』는 약호를 들고 항마좌의 좌세를 취한 약사여래상을 삽도로 소개하고 있으므로(도 14) 항마좌에 대한 인식은 지니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圖像抄』의 분류는 비교적 정확하지만, 필자가 주의한 우견편단 착의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견편단 착의법의 약사여래상은 90%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착의법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필자는 앞에서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우견편단 착의법도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圖像抄』는 도상의 분류를 했을 뿐 각각의 도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각 특징의 기원과 출현시기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우견편단의 착의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상의 착의법은 통견과 우견편단으로 나눌 수 있다. 고대 일본 불교미술에서 먼저 유행한 것은 통견 착의법이다. 일본 최초의 대규모 사찰인 飛鳥寺의 본존, 즉 飛鳥大仏²¹이나 法隆寺 金堂 금동석가여래삼존상, 法隆寺 獻納寶物 제143호 금동삼존불(도 15) 등에서 통견 착의법을 확인할 수 있다.



도 15 〈金銅三尊佛〉부분, 法隆寺獻納寶物 제143호, (東京國立博物館, 『特別展, 法隆寺獻納寶物』, 1996, p. 127)

그런데, 7세기 중반이후에 初唐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불상 양식이 수입되면서 우견편단 착의법이 유행하였다. 우견편단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인도식 우견편단과 오른쪽 어깨를 일부 덮는 중국식 우견편단의 2가지 형식이 있으나, 일본의 약사여래상에서는 후자의 중국식 우견편단법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 검토한 法隆寺 금당 벽화 중의 1호벽과 10호벽의 여래상을 비롯하여 川原寺터에서 출토된 塼佛(

²¹ 飛鳥大仏은 상호를 비롯한 상의 표면에 화재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은 1196년의 화재 이후에 보수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화재에 의하여 보수된 곳은 손과 다리의 일부이며 나머지 부분은 조성 당시의 것이라고 하므로, 통견의 착의법은 609년 조성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충실히 남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櫻場裕介, 『飛鳥寺本尊丈六釈迦如來坐像について』, 『奈良美術研究』14(2013.3), pp. 59-70. 大橋一章, 『飛鳥大佛の制作と火難』, 左誌, pp. 71-76. 를 참조.



도 16 〈塙佛〉, 7세기, 川原寺 출토(奈良文化財研究所, 『飛鳥・藤原京展』, 2002, no.60)

도 16)이나 法隆寺 금당 벽화 등 白鳳시대의 불상에서 우견편단 착의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川原寺는 天武 2년(673)에 一切經의 書寫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그 이전인 天智天皇 당시에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川原寺터에서 출토된 전불들도 670년대의 제작으로 짐작된다. 이 전불들은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인도식 우견편단의 의좌여래상의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한 것으로, 우견편단 착의법의 이른 예로 주목된다.

그에 비하여 法隆寺 금당 벽화 중의 1호벽과 10벽의 여래상은 중국식 우견편단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내 장엄용의 소규모 전불에서는 인도식 우견편단, 예배용 여래상에는 중국식 우견편단이 사용된 것으로 추

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되었던 간에 이 형식은 奈良시대에 들어서면 藥師如來뿐 아니라 阿彌陀如來나 盧舍那佛 등에도 채택되어 飛鳥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적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필자는 일본 약사여래상의 가장 큰 도상적 특징은 항마좌라고 생각하고 있다. 항마좌는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놓고 가부좌하는 자세를 말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일본의 대다수의 불상은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리는 길상좌를 취하고 있으므로 항마좌는 매우 드문 형식이지만, 상호나 수인에 비해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일본의 항마좌 불상은 法隆寺 金堂 6호벽의 아미타여래상, 當麻寺 金堂 塑造彌勒佛坐像, 夏見廢寺 출토 塙佛 등 白鳳시대의 여래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奈良시대에 들어서는 東大寺 盧舍那大佛, 葛井寺 千手觀音坐像, 法隆寺 傳法堂西の間阿彌陀如來坐像 등을 들 수 있다.

金理那씨가 고찰한 바와 같이 玄奘과 義淨 등이 인도의 降魔成道像, 즉 金剛座眞容佛像을 소개하여 이 불상들이 널리 유행한 점을 고려한다면,²² 중국에서의 항마좌상의 유행도 初唐시기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大唐西域記』卷7에 기록된 금강좌진용상은 길상좌를 취하고 있었지만, 항마성도상의 유행을 통하여 항마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그 결과 일본에서는 필요에 따라 아미타여래나 약사여래상 등의 여래상, 그리고 천수관음 등 보살상에까지 항마좌가 채택

22 金理那, 『印度佛像의 中國傳來考—菩提樹下 金剛座眞容像을 중심으로—』,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일조각, 1993), pp. 270-290.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항마좌의 좌법도 우견편단 착의법과 마찬가지로 初唐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아 白鳳시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어서 약사여래상의 수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존격 자체가 불분명한 法隆寺 금당 금동약사상이나 9호와 10호 벽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약사상이 오른손은 손가락을 모두 펴거나 약간 구부린 정도의 시무외인을 결하고 있고, 藥師寺의 약사상이 엄지와 검지, 醍醐寺의 약사상은 엄지와 장지를 맞대는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특정한 여래의 수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약호의 대부분은 후보이므로, 조성 당시부터 약호를 지니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약사신앙의 시작이 일본의 밀교 도입이전인 점을 감안한다면, 약사여래상의 독자적인 수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시무외인이 여러 존격의 불상에 공통적으로 채택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것이 『圖像抄』의 첫째 유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8세기 후반에 不空 번역의 『藥師如來念誦儀軌』가 전래되면서 약호가 지물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나, 奈良시대말기에서 平安시대 전기에 조성된 唐招提寺 金堂과 延曆寺 根本中堂, 室生寺 金堂의 약사여래상에는 약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호의 등장은 醍醐寺 약사상이 조성된 10세기 전후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것이 『圖像抄』의 둘째 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약사여래상의 도상적 특징인 우견편단 착의법과 항마좌의 좌법은 白鳳시대에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며, 수인은 飛鳥시대 이후에 널리 유행하던 시무외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약사여래상의 도상은 이미 白鳳시대에 성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현존 최고의 예는 72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奈良 藥師寺의 약사상이므로, 白鳳시대와 藥師寺 약사상의 연결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藥師寺의 창건과 약사여래상의 도상

고대 일본의 약사여래상은 앞에서 검토한 도상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통일신라시대의 약사상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중국의 약사상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고대 일본 약사상의 도상은 일본의 약사신앙의 성립과정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일본 최초의 약사신앙의 사찰인 藥師寺의 창건과 약사상의 조성과정, 그 배경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藥師寺는 2장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680년에 天武天皇이 병에 걸린 鸕野讚良皇后의 쾌유

를 기원하여 발원한 사찰이었다. 발원 후 곧 황후는 쾌차하였지만, 사찰의 건축공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天武는 藥師寺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686년). 그러나 天武의 태자인 草壁皇子가 갑자기 병사하고, 草壁의 아들인 輕皇子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鸕野讚良가 스스로 즉위하여 持統天皇이 되었다.

이에 藥師寺의 조성 공사는 持統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持統 2년(688)에 藥師寺에서 無遮大會를 열었다고 한다. 불상도 없이 무차대회와 같은 대규모의 법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大橋一章씨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가 이 당시에는 불상과 가람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²³ 필자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持統은 694년에 藤原京으로 천도하였으며, 697년에는 15세가 된 輕皇子에게 양위하여 황통을 잇게 하고 스스로는 태상천황이 되었다. 이듬해인 698년에는 藥師寺의 조영이 거의 완성되었고, 大寶律令이 701년에 반포되었다. 이처럼 持統은 天武와 함께 추진해 왔던 藤原京 건설, 藥師寺의 조영, 율령 제정의 대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어린 손자 文武가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진 후 703년 58세로 사망하였다. 文武 이후 元正, 聖武, 孝謙으로 이어지는 奈良시대 전반의 천황은 天武와 持統의 嫡統을 잇고 있으므로, 鸕野讚良는 持統이라는 諡號를 갖게 된 것이다.

당시의 수도인 藤原京의 주변에는 舒明天황이 발원한 百濟大寺(훗날의 大安寺), 齊明天황이 발원한 川原寺, 그리고 일본 최초의 사찰인 飛鳥寺(훗날의 元興寺)가 官寺로서 조정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찰들은 持統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天武와 持統의 혈통을 이은 奈良시대의 역대 천황에게 있어서 藥師寺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藥師寺는 平城京 遷都(710년)에 따라 현재의 奈良市 西ノ京로 移轉하였다. 그런데 그동안의 조사성과에 의하여, 西ノ京 藥師寺의 寺地의 규모와 가람의 배치는 藤原京의 藥師寺 즉, 本藥師寺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²⁴ 다른 점은 회랑이 單廊에서 複廊으로, 사리의 안치 장소가 동탑에서 서탑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었다. 藥師寺와 마찬가지로 藤原京에서 平城京으로 이전한 元興寺나 大安寺는 가람의 규모와 배치가 藤原京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비하여 藥師寺는 本藥師寺의 규모와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藥師寺는 天武와 持統系의 천황이 직접 발원하고 조성한 사찰이기 때문에 元興寺나 大安寺보다 규모가 더 크고 遣唐使가 전해온 최신의 양식을 반영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 大橋一章, 『藤原京藥師寺造營考』, 『論叢佛教美術史』(吉川弘文館, 1986), pp. 321-351.

24 足立康, 『藥師寺伽藍の研究』, 『日本古文化研究所報告 第5』(日本古文化研究所, 1937), pp. 69-77.

하고, 가람의 규모와 배치가 本藥師寺와 같은 것은, 사찰의 이전 계획이 本藥師寺의 가람의 모습 그대로 새로운 수도에 세우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西ノ京에 조성된 藥師寺는 本藥師寺와 규모와 배치만 같은 것이 아니었다. 藥師寺에 현존하는 東塔의 건축양식은 奈良시대에 건립된 다른 건물들에 비하여 古式이며, 동탑 상륜부에는 藥師寺의 창건과정에 대하여 기록한 檨銘이 남아있다. 그 때문에 동탑을 藤原京에서 解體 移建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藥師寺縁起』에 의하면 平安시대에 이르러서도 藤原京의 本藥師寺에 탑이 남아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解體 移建이 아닌 신축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²⁵

창건 당시의 탑이라면 몰라도 신축한 탑이 타사원의 건물에 비하여 고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檨銘은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창건에 대한 내용만을 기록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하여 足立康씨는 本藥師寺의 탑의 건축양식과 그곳에 새겨져 있던 檨銘까지 西ノ京의 새 탑에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²⁶

足立씨는 藥師寺가 당시 역대 천황의 혈통의 근본인 天武 持統에 의하여 발원 창건된 사실, 즉 藥師寺와 황실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藥師寺가 本藥師寺의 가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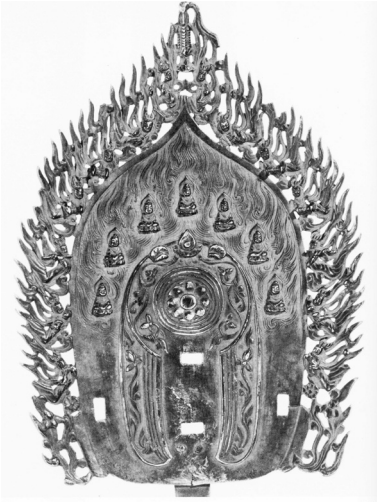
天武 持統系の 특별한 혈통 의식은 현재 正倉院에 전래하는 赤漆文櫨木御厨子を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國家珍寶帳』에 의하면 이 厨子は 天武에서 持統을 거쳐 文武, 元正, 聖武, 孝謙 천황에게 대대로 전승되었다고 하며, 『國家珍寶帳』에서도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황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품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은 厨子の 전승자에 文武와 元正 사이의 재위했던 元明天皇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元明은 天武와 持統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関根真隆씨의 지적이 있다.²⁷ 元明은 비록 文武와 元正의 모친이었지만, 元明의 아버지는 天智天皇이며, 어머니는 蘇我氏 출신이므로 天武와 持統의 嫡系가 아니었다. 元明은 文武와 聖武를 잇는 중간역할로서 천황에 즉위한 것이므로 厨子を 전승할 자격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関根씨의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藥師寺의 역사여래상은 天武 持統의 혈통의식이 강하게 의식된 배경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현재의 藥師寺 역사상은 藤原京 本藥師寺의 역사상의 도상적 특성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東塔과 마찬가지로 역사상도 本藥師寺의 역사상을 模作에 가까울 정도로 도상을 충실히 계승하여 조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광배나 대좌 등

²⁵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福山敏男 외 1인, 『藥師寺』(東京大學出版會, 1958), pp. 139-199.

²⁶ 足立康, 주)24 논문, pp. 77-83.

²⁷ 関根真隆, 『獻物帳の諸問題』, 『正倉院年報』1(1979, 3), pp. 20-38.



도 17 〈甲寅年銘光背〉, 594년, 東京國立博物館(奈良文化財研究所, 『飛鳥・白鳳の在銘金銅佛』, 1979, p. 51)

에 보이는 7세기 불상의 요소로 방증된다고 생각한다.

藥師寺 약사상의 舊樣式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七大寺巡禮私記』藥師寺條에 주목하고자 한다. 『七大寺巡禮私記』에 의하면 약사상 광배의 주위에는 19軀의 天人이 부착되어 있으며, 須彌炎에는 3柱의 九輪을 갖춘 보탑이 있었다고 한다.²⁸ 일찍이 足立康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광배 주위에 천인이 부착된 예는 甲寅年(594)銘 王延孫 발원 광배(도 17)나 法隆寺 금당 본존 석가여래상 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癸酉年(673)銘 阿彌陀三尊佛碑像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광배 상부의 須彌炎에 보탑을 배치한 예는 法隆寺 夢殿의 救世觀音菩薩의 광배를 들 수 있는 등,²⁹ 藥師寺 약사상의 광배는 8세기의 최신 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조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舊樣式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藥師寺 약사상의 須彌座도 주의할 만하다. 須彌座는 法隆寺 金堂 金銅釋迦如來三尊像과 當麻寺 金堂 塑造彌勒佛坐像 등 飛鳥시대에서 白鳳시대의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반면, 奈良시대에 조성된 불상에서는 葛井寺 千手觀音坐像이나 法隆寺 傳法堂 阿彌陀如來坐像, 唐招提寺 金堂 盧舍那佛坐像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蓮華坐가 등장한다. 대좌에 있어서도 시대적인 변화양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藥師寺 藥師像은 舊樣式인 須彌座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8세기에 조성된 藥師寺 약사상에 7세기에 유행한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은, 東塔과 마찬가지로 舊樣式을 충실히 계승한 사실을 시사한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天武와 持統의 혈통은 孝謙에서 끝나고 그 다음은 天智의 혈통에서 계승하였다. 따라서 조정에서 차지하는 藥師寺의 위상은 약해지고, 天智계의 사찰이었던 大安寺가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³⁰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藥師寺 약사상의 도상의 전통은 鎌倉시대까지 계승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회적 정치적 배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藥師寺 약사상의 도상이 후대까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²⁸ 현재의 광배는 1635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광배 주위에 천인이 보이지 않는다.

²⁹ 足立康, 『藥師寺金堂本尊と七佛藥師光背』 『建築史』1-2(1939, 3), pp. 105-114.

³⁰ 中野野聡, 『靈驗佛としての大安寺積迦如來像』 『佛教藝術』249(2000, 3), pp. 83-102.

藥師寺는 天武와 持統에 의하여 발원되고 건립된 사찰이었기 때문에 창건 당시에는 조정에 서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이 매우 컸을 것이다. 더욱이 藥師寺와 약사상은 발원하자마자 持統의 병을 쾌차하게 하였고, 그 황후는 스스로가 천황이 되어 손자가 천황에 즉위하도록 하여 혈통을 잇게 하였을 뿐 아니라, 天武가 추진했던 율령을 제정하고 藤原京을 건설하여 고대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한 점을 고려한다면 藥師寺 약사상은 병의 치유라는 현세이익적인 면에서도 매우 영험이 있는 사찰이며 불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藥師寺緣起』는 天武가 丈六藥師如來像 조성을 발원하자 靈驗이 있어서 황후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다.³¹ 이 기사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내용의 영험담으로 보이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당시의 藥師寺는 이 불상을 靈驗像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藥師寺 약사상의 도상이 白鳳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점을 중시한다면, 藥師寺 약사상에 대한 영험상의 인식도 조성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孝謙이 다시 즉위하여 稱徳천황으로 있을 때까지는 황실에서 천황 등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약사상을 발원할 경우, 天武 持統의 혈통 면에서, 또한 영험 면에서도 藥師寺의 약사상이 우선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新藥師寺의 약사여래상은 그러한 배경에서 발원되었기 때문에 藥師寺 약사상과 같은 도상과 수미좌까지 갖춘 모습으로 조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한편, 당시의 官寺와 관련된 불상의 조성은 造東大寺司로 대표되는 官營 造佛集團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 도상이 선택되어 계승되기 쉬운 환경이었던 점도 藥師寺 약사상이 고대 일본 약사상의 도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환경적 배경이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이 점차 후대로 내려가면 도상의 규범성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조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藥師寺 약사상과 같은 도상의 예가 40%에 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정황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최근, 長岡龍作씨는 藥師寺의 금당이 용궁의 모습이라는 口傳을 전한 『七大寺巡禮私記』의 기사를 근거로 藥師寺의 영험성을 논하였다.³² 즉, 『海龍王經』請佛品에 의하면 용왕이 生身の 석가를 모시기 위하여 용궁을 지었으므로, 용궁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전하는 藥師寺 금당에도 生身の 부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生身の 부처는 곧 영험불을 의미하는 바, 長岡씨의 주장은 佛殿과 불상과의 관계를 지적한 것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많다.

『七大寺巡禮私記』는 9세기 후반의 최고 권력자이었던 藤原道長이 藥師寺 금당에 들어가려

³¹ 右寺者, 天武天皇即位八年庚辰十一月, 皇后不愈, 巫醫少驗, 因之爲除病延命, 發奉鑄丈六藥師佛像之願, 爰靈驗有感, 皇后病愈, 天皇大感, 已鑄金銅之像. 大橋一章 외 1인, 『藥師寺』(里文出版, 1990), pp. 335에서 인용.

³² 長岡龍作, 『日本の佛像』(中央公論新社, 2009), pp. 60-70.

고 하자 큰 바람이 불어 入堂할 수 없었다는 영험담을 전하고 있다. 이 일화는 건물 자체가 영험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그 안에 안치된 불상이 영험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藥師寺의 藥師像이 영험상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특별한 금당, 즉 현재 보는 바와 같은 차양 칸을 2중으로 두른 특이한 모습의 금당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秘佛 관념이 유행한 당시에는 신자들이 藥師寺 약사상, 그것도 靈驗藥師像을 실견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었고, 대다수는 특이한 모습의 금당을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금당과 영험약사상에 대한 뜨거운 동경과 신앙이 고조되어 용궁 전설을 낳았을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VII. 맺음말

이상, 일본 약사여래상의 도상의 성립과 그 전개 양상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7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일본 약사여래상의 도상적 특징으로 우견편단의 착의법과 시무외인의 수인, 항마좌의 좌법인 점을 들었고, 각 특징은 白鳳시대에 처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약사신앙은 白鳳시대의 本藥師寺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사찰과 약사상은 天武와 持統에서 聖武, 孝謙으로 이어지는 嫡統의 역대 천황에게는 혈통으로나 영험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藥師寺 약사상의 도상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奈良시대뿐 아니라 훨씬 후대인 鎌倉시대까지도 이를 계승한 약사여래상이 다수 조성된 것이다. 특히 다른 존격의 불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항마좌가 약사상에서 널리 유행한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한편, 약사신앙의 所依經典은, 藥師寺 창건시기에는 당시로서는 최신의 玄奘譯『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650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新藥師寺像 약사상은 광배의 화불에서 사리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義淨譯의『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707년)이었으며, 醍醐寺 약사상은 不空譯의『藥師如來念誦儀軌』(8세기 후반)에 의하여 약호를 지물로 지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대 일본 약사여래좌상의 도상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과

의 관계, 그리고 약사여래입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_일본불교(Buddhism of Japan), 약사여래(*Bhaiṣajyaguru*), 약사사(*Yakushiji-temple*), 항마좌(*Asana style with the left foot on top*), 영험(miraculous virtue)

■ 투고일 2012년 9월 24일 | 심사개시일 2013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0월 30일 ■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圖像抄』
- 『聖德太子傳私記』
- 『藥師如來念誦儀軌』
-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
- 『一切經音義』
- 『七大寺日記』
- 『七大寺巡禮私記』

2. 한국어 참고문헌

- 金理那, 「印度佛像의 中國傳來考-菩提樹下 金剛座眞容像을 중심으로-」, 『韓國古代佛教彫 刻史研究』(일조각, 1993)
- 林南壽, 「古代 韓國 藥師信仰의 展開樣相과 造像」, 『史林』24(2005, 12), pp. 73-100,

3. 일본어 단행본

- 久野 健, 『東北古代彫刻史の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1971)
- 内藤藤一郎, 『日本佛教圖像史』(東方書院, 1932)
- 内藤藤一郎, 『飛鳥時代美術』(政經書院, 1934)
- 大橋一章, 『藥師寺』(保育社, 1986)
- 大橋一章 외 1인, 『藥師寺一千三百年의精華』(里文出版, 2000)
- 大橋一章 외 1인, 『藥師寺』(里文出版, 1990)
- 稲木吉一, 『新藥師寺と白毫寺·圓成寺』(保育社, 1990)
- 望月信亨, 『佛教大辭典』(世界聖典刊行協會, 1974)
- 福山敏男 외 1인, 『藥師寺』(東京大學出版會, 1958)
- 水野敬三郎, 『醍醐寺大觀』第1卷(岩波書店, 2001)
- 伊東史郎, 『藥師如來像』(至文堂, 1985)
- 長岡龍作, 『日本の佛像』(中央公論新社, 2009)
- 町田甲一, 『藥師寺』(グラフ社, 1984)

- 足立 康, 『藥師寺伽藍の研究』(日本古文化研究所, 1937)
倉田文作, 『佛像のみかた』(第一法規出版株式会社, 1971)
NHK「復元幻の大寺院」プロジェクト, 『復元幻の大寺院: 新藥師寺の謎に挑む』(NHK出版, 2011)

4. 일본어 논문

- 関根真隆, 「献物帳の諸問題」, 『正倉院年報』1(1979, 3), pp. 20-38,
亀田 孜, 「古代の繪畫」, 『世界美術全集』9(平凡社, 1952), pp. 66-74.
亀田 孜, 「法隆寺金堂の壁畫に就いて」, 『星岡』70(1936, 9), pp. 5-6.
大橋一章, 「飛鳥大佛の制作と火難」, 『奈良美術研究』1(2004, 3), pp. 71-76.
大橋一章, 「藤原京藥師寺造營考」, 『論叢佛教美術史』(吉川弘文館, 1986), pp. 321-351.
大西修也, 「再建法隆寺と藥師銘成立の過程」, 『佛教藝術』133(1980, 11), pp. 34-51.
福山敏男, 「法隆寺の金石文に關する二三の問題」, 『夢殿』13(1935, 6), pp. 47-64.
松原智美, 「法隆寺金堂壁畫の主題」, 『論争奈良美術』(平凡社, 1994), pp. 125-153.
櫻場裕介, 「飛鳥寺本尊丈六釈迦如來坐像について」, 『奈良美術研究』14(2013, 3), pp. 59-70.
源 豊宗, 「法隆寺の壁畫」, 『美』17-11(1926, 6), pp. 225-246.
林 南壽, 「葛井寺千手觀音像の造像をめぐる問題」, 『日本學報』92(2012, 8), pp. 309-319.
林 南壽, 「金堂藥師三尊像」, 『藥師寺-一千三百年の精華』(里文出版, 2000), pp. 89-100.
足立 康, 「藥師寺金堂本尊と七佛藥師光背」, 『建築史』1-2(1939, 3), pp. 105-114.
中野 聰, 「法隆寺傳法堂西の間阿彌陀如來如來坐像の印相について」, 『美術史研究』41(2003, 12), pp. 147-164.
中野 聡, 「靈驗佛としての大安寺釈迦如來像」, 『佛教藝術』249(2000, 3), pp. 83-102.
會津八一, 「藥師寺東塔の銘文を讀む」, 『天平』3(1948, 12), pp. 4-21.
肥田路美, 「菩提瑞像關係史料と長安における觸地印如來像」, 『奈良美術研究』1(2004, 3), pp. 104-112.

국문초록

고대 일본의 약사여래상은 지물뿐 아니라 착의법과 좌법에 있어서도 한국, 중국과는 다른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서 도상의 성립과 그 전개에 일본 나름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된 바 없다.

이에 본논문에서는 7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고대 일본의 약사여래좌상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개관하며, 각각의 도상적 특징과 조성 배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본 약사여래상의 도상의 성립과 전개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일본 약사여래상의 도상이 지니는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여 다음과 결론을 얻었다.

7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일본 약사여래상의 도상적 특징으로 우견편단의 착의법과 시무외인의 수인, 항마좌의 좌법인 점을 들었고, 각 특징은 白鳳시대에 처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약사신앙은 白鳳시대의 本藥師寺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사찰과 약사상은 天武와 持統에서 聖武, 孝謙으로 이어지는 竊統의 역대 천황에게는 혈통으로나 영험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藥師寺 약사상의 도상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奈良시대뿐 아니라 훨씬 후대인 鎌倉시대까지도 이를 계승한 약사여래상이 다수 조성된 것이다. 특히 다른 존격의 불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항마좌가 약사상에서 널리 유행한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한편, 약사신앙의 所依經典은, 藥師寺 창건시기에는 당시로서는 최신의 玄奘譯『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650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新藥師寺像 약사상은 광배의 화불에서 사리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義淨譯의『七佛藥師經』(707년)이었으며, 醍醐寺 약사상은 不空譯의『藥師如來念誦儀軌』(8세기 후반)에 의하여 약호를 지물로 지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conography of Japan's Ancient Statue of Bhaisajyaguru

Lim Nam-Su *

Japan's ancient statues of Bhaisajyaguru are uniquely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and China not only in terms of the objects held by them, but also in the way their garments are depicted, and the way they are seated. Thus, Japan presumably established and developed iconographies of its own but little attention has ever been paid to them.

This paper targets representative examples of Japan's ancient Statues of Seated Bhaisajyaguru, which date back to the 7th to 10th century, and examined their icon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background to their creatio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patterns of Japan's statues of Bhaisajyaguru iconography were also reviewed. Thus, the meaning of such iconography was studi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reached.

The chief characteristics of these icons are as follows: each statue features a robe draped over the right shoulder; and the assistant is seated in the Asana style with the left foot on top of thigh. Such characteristics first appeared in the Hakuho Period.

Japan's Bhaisajyaguru faith originated from Motoyakushiji Temple in the Hakuho Period. This temple and Bhaisajyaguru were important to emperors such as Tenmu, Jitou, Shomu and Koken in terms of lineage or miraculous virtue; thus, the iconographies of the Yakushiji Temple and Bhaisajyaguru greatly influenced future generations of Japanese.

Meanwhile, the Soui Sutra of the Bhaisajyaguru faith, which was written around the time Yakushiji Temple was constructed, was presumably the latest translated version, i.e. the Bhaisajyaguru Sutra (650). And, given that sarira were found in the Sinyakushiji Bhaisajyaguru, the sutra must be the Chilbul Medicine Master Sutra (707) translated by

* Yeungnam University

Yi Jing. According to the Medicine-Master Buddha Chanting Records (late 8th century) translated by Amogha-vajra, the Statue of Bhaisajyaguru of Daigoji-temple presumably held medicine pot in the hand.